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10시  
오전 (3부) 10시 2시  
오전 (4부) 2시 4시  
금요일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12월 8일 (제719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 삼밭의 썩대

‘마중지붕(麻中之蓬)’, 곧 ‘삼밭의 썩대’는 썩이 삼밭에 섞여 자라던 삼대처럼 곧아진다는 뜻으로, 밭이나 논두렁에서 자란 썩이 키가 작은데 키가 작은 썩이 삼밭에서는 삼을 많이 팔고 큰 썩대로 자란다는 뜻이다. 즉 사람도 좋은 환경, 훌륭한 사람과 같이 지내면 그 영향을 받아 좋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속담으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와도 뜻이 통한다.

나는 늘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고 말해왔다. 경험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 사람만큼 큰 환경은 없기 때문이다.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죽지만, 큰 사람 밑에 작은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다. 모세 밑에 여호수아가 그랬고, 엘리야 밑에 엘리사가 그랬고, 예수 밑에서 자란 제자들이 그랬다. 우리 옛말에도 ‘망아지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자식은 한양으로 보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좋고 넓은 세계에서 배우고 익혀야 인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들에게 골목대장보다 큰 사람 밑에서 쫓겨나듯이 낫다고, 머슴을 삼아도 정승집에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닭은 풀은 시간과 정비례 하는 법이니까.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노는 물이 다르고, 주위에 성공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곧 ‘철이 철을 낚아뽑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잠언 27장 17절 말씀이 현실에서 증명되는 셈이다.

삼밭에 썩은 묶어주지 않아도 곧게 자란다. 즉 환경이 인간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곧 너의 미래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13:20).

## 네 앞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53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계속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가 지난 2일과 3일 인천 예수중심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이 일에 뜻이 있는 성도들이 미리 배추를 다듬고 절여 씻어놓은 상태라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서울과 인천의 교역자와 장로, 그리고 성도들은 김장하기에 수월했다. 철저하게 준비한 자들 덕분이다. 기초과학이 철저해야 첨단과학의 길이 열리듯 말이다.

총회장 목사님은 행사에 앞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

될 바에 닮을 대다보면’ 벌써 여기까지 됐다면,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물인 만리장성도 한 장의 돌을 쌓고 쌓아서 이룬 것입니다. 아마 만 리에 이르는 지평선을 바라보았다면 기합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돌을 하나하나 쌓다보니 그 큰일을 이룬 것입니다.

나 역시 세계인을 어떻게 다 전도할까 고민하지 않았습다. 나에게 맡겨진 한 마리 양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를 제2의 이조석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염되고 전염되어 세계 70여 개국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넓혀지게 된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도 동일합니

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되든 전도든 사업상의 일도 이런 마음으로 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고, 오늘이 산더미 같은 배추도 이런 마음으로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일에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한 번 해봐서 그런지 올해는 일이 훨씬 조직적이고 수월했다. 역시 경험보다 좋은 스승은 없는 듯하다.

일을 마치고 다 같이 점심식사를 했다. 김장때는 자고로 삶은 돼지고기에 곁절이가 일미다. 절인 배추와 삶은 돼지고기를 먹노라니 김장 터가 곧 잔치 터가 된 듯 모두들 행복해 보였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2013년 12월 3일, 인천예수중심교회)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내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뜻 깊은 말씀입니다.

논밭에 씨를 뿌리거나 추수를 할 때 옛 어른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들아, 절대 저 지평선을 보지 마라.’ 왜냐하면 지평선을 보는 순간에 ‘야휴! 이 넓은 땅을 언제 다 파종하나? 언제 다 추수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도 하기 전에 피곤하고 자신감이 떨어진다고요. 그저 내 앞의 땅에 씨를 뿌리고, 내 앞에

다. 사랑의 간호활동 실천자였던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사람이 ‘수녀님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테레사 수녀는 ‘나는 그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었다. 그것이 전염되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미가 어떻게 독을 허물까요? 그것은 자기 앞에 있는 흙을 열심히 긁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말과도 상통하는데,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우직하게 내 앞의 일에 충성하면 산도 옮길 수 있고, 난제도 다

정성스럽게 담김 김장김치는 빨간색으로 된 153구제 스티커가 붙은 스티로폼 박스에 담겨 각 교구 전도사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사랑 나눔 김장단 그기’와 더불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유쾌하게 하는 자는 유쾌하여지리라”(잠11:25),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잠19:17)고.

끝으로 이 일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총회장 목사님과 교역자 및 장로들도 동참했다



정성껏 담은 김장을 수혜자에게 전했다



깨끗이 씻은 김장배추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0:1~16)



# 오해는 사랑과 믿음이 식은 결과다

제가 파라과이 집회를 마치고 귀국한 날 밤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오는데, 여자들은 조선 말기 신여성들이 입었던 하얀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고, 남자들은 검정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깨끗했고, 정중했으며,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용히 보이지 않는 담을 쌓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서로에게 꽃다발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다 소경이라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되레 그것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꿈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우리 성도들로 담을 짓게 하고, 교회와 담을 쌓게 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아름답고 깨끗했습니다. 번지르렀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견줄 수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 말입니다. 이들은 육적인 치장, 곧 윤리와 도덕으로 품을 잡고 교회에 들어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모자라다니, 몰상식하다니 모욕을 줍니다. 자기들만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인양 성서에 위배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교회, 혼적인 교회, 그리고 영적인 교회,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육적인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 문제가 되는 것이 혼

귀신 이야기 한다고 싫어하는 사람 속에 이미 악한 영이 들어와 있고, 귀신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싫은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잠잠하고 조용하면 죽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죽은 교회의 차이입니다. 교회는 손뼉을 치며 찬송하고, 방언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무슨 토를 달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가 그렇게 하라고 하

셨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악한 것들이 승리해서 유럽이나 미국 교회가 슬집으로, 박물관으로 전락한 겁니다. 악한 것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잠재우려고 합니다. 인격적인 모습, 지적인 모습,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타고 들어와 영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깨어야 합니다.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매일 귀신 쫓는다고 불평하고, 손뼉 치며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교양 없다하고, 지식적으로 부족하다니 하다가는 우리 교회도 혼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주의 종들이 각 성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성도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우가 양털을 뒤집어쓰고, 발톱을 숨기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소경이면 어찌 됩니까? 양 떼 다 죽게 됩니다. 이슬우화에 늑대와 일곱 마리 양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양이 시장 한들 늑대가 손에 하얀 밀가루를 묻히고 새끼

양에게 다가가 자기가 엄마라고 속이 새끼들이 집 문을 열었다가 늑대에게 다 죽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교회에 좀 배운 사람이 오면 감투부터 씌웁니다. 세상에 회장이요 사장이 오면 행여 다른 교회로 갈까 봐 한 자리부터 줍니다. 그들이 여우인지 늑대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에 교회의 직분을 맡길 때 새로 입교한 자를 쓰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건만 하나님 말씀은 잊었습니다. 그러다 호되게 당하는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검증은 해야지요. 이렇게 흔들

보고 저렇게 흔들어야지요. 흔들면 밀가루가 떨어져 늑대라는 것을 알게 되고, 흔들면 양 털이

벗겨져 여우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임직할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검증한 후에 일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묻고 물으신 후에 그에게 양 떼를 맡기신 것입니다.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옵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요21:17).

더욱 어리석은 목자는 한 술 더 떠서 오랫동안 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새로 입교한 자들에게 자리를 내주기까지 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지요. 이젠 주객전도(主客顛倒),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힌 돌은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주춧돌을 빼버리면 그 집이, 기업이, 교회가, 가정, 국가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는 성경

의 말씀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식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 박힌 돌을 빼내지 않습니다. 그동안 예배 사회자로 세워달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 조급은 죄다 매사 검증하라

현구 장로나 김종일 장로보다 여러모로 번듯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부탁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해외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에 능하고, 다재다능한 자들이 합류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은택 전도사와 송조현 전도사를 씁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굴러온 돌을 무조건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쓸 만한 돌이 굴러오거든 그 돌이 박힐 때까지 기다려야 옳은 것입니다. 검증이 되고 사랑과 믿음이 쌓일 때까지 말입니다. 요즘 대형교회들이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식으면 별 것 아닌 것에도,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에도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옛말에 '산토끼 잡다가 집토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개국공신들, 기업의 창업멤버들, 교회의 초창기 성도들을 뽑아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잘난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쓰셨고, 다윗 역시 그의 병사 37명을 끝까지 믿었지 않습니까?

악한 것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깨고, 성도들을 꾀리고 합니다. 그래서 꾀박도 해보았지만 별 효험이 없는 것을 알고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는 혼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합려후야!

##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라

적인 교회입니다. 사람의 혼을 만족시키는 교회, 말씀을 쫓는 명목아래 아름다운 말을 나열하고, 윤리와 도덕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시골벽적해야 합니다. 마치 산부인과처럼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절대로 가만있을 수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물론이고, 전도하여 새 생명을 낳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낳는 동안의 고통소리와 환희의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도 고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왜 매일 귀신 이야기야?'라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마을에 간첩이 있다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이 차 안에 소매치가 있다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당연히 간첩이 제일 싫어하고, 소매치기가 제일 싫어합니다.

##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칼럼::

::비유열전::

## 2014 경제전망

주요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2014년 세계의 세계경제는 3.4%, 미국은 3%, 유럽은 1% 성장을 전망하면서, 과거에는 신흥국들이 주축이 되어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으나 내년부터는 주요 선진국들이 다시 견인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정책금리에 대한 인상은 2016년 초반 이후부터 집행될 것이며, 2013년도 3분기 말의 증시는 유례없이 호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QE(양적완화)의 축소로 인한 파급효과에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세계성장의 전망수치보다 크게 높지 않은 3%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의 경기회복세 및 유로존의 경기부진에서의 탈피는 부가가치가 높은 대 미국 및 유럽의 수출액을 상승시켜 GDP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실현할 것이며, 둘째, 내수의 경우 국제원자재 가격은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실질적인 구매력을 증가시켜 전반적으로 2% 후반대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투자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축소 등으로 건설투자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의 뇌관인 1,000조의 가계부채 부담, 특히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가 164%라는 수치는 내수시장의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가 느끼게 되는 체감경기는 2014년도에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저출산 뿐만 아니라 경제도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각 사회 구성원은 주어진 상황과 위치에서 우발적 변수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장기간 지속되는 유럽경제의 불황, 높은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로 인해 중산층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수권자나 행정수반을 비난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교이자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가톨릭도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중요한 배경은 집권당의 정체와 상관없는 민생보장입니다. 즉 식재료 및 생필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최저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수배분을 통한 사회보장 시스템은 저소득층의 자국민뿐만 아니라 제3국출신의 난민, 혹은 이민자에게도 양질의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 행정의 수반은 무리한 공약의 남발이나 집행보다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국제경제 환경이나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향후 국가경제운영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난제들입니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실행해가는 정치의 기술이 적극적으로 작동해야 할 때입니다.

임윤석

## 마음이 편해야지!

시골 쥐가 도시 쥐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도시 쥐는 시골 쥐에게 자랑도 할 겸 해서 한 상 맛들어지게 차렸습니다. 시골 쥐는 보지도 못한 음식, 곧 치즈와 빵, 그리고 이름 모를 과일까지 시골 쥐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적 별어지게 차렸습니다. 그리고 도시 쥐가 말했습니다. "특별하게 차린 것은 없어. 그냥 내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야. 너도 한 번 먹어봐. 너도 이제 맨날 보리나 콩 같은 것만 먹지 말고 도시로 나와서 이렇게 먹고 살아."

도시 쥐와 시골 쥐가 한참 식사를 하는데,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두 쥐는 음식도 삼키지 못하고 구멍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람이 나가자 식탁에 올라가 음식을 막 먹으려는 순간 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쥐는 또 정신없이 숨었습니다. 사람이 나가고 식탁에 앉은 시골 쥐가 말했습니다. "너의 진수성장은 위험과 공포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

낸 것이로구나. 나는 그냥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보리와 밀을 먹는 편을 택하겠어."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고(잠14:30). 또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잠15:13)고도 말씀하십니다.

행복의 제일 조건은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비싼 차, 좋은 학벌과 가문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화초장을 놓고 산 놀부네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밥한 숟가락 배불러야 했던 흥부네가 행복했던 이유입니다.

마음의 위로와 평강, 안식을 원하십니까? 마음의 짐을 예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이 주지 못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마11:29)".

예수중심편집실



위엿 것을 생각하고  
망엿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2)

::Praise the God::



귀를 기울이세요

## 목적 없는 훈련은 없다

김연아, 손연재, 박인비 등 성공한 스포츠 선수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모두 고된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비단 스포츠 선수들 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이들은 지식, 물질, 인간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훈련받고 다듬어진 후에야 탄생된다. 성공과 강인한 훈련의 상관관계는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성공은 바로 천국입성이며, 또한 주께서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을 실제로 얻기 위해 이 땅의 광야생활에서 거쳐야 할 과정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의 훈련이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히 11:6),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근원이 된다(요일5:4). 아브라함은 믿음으

로 아들 이삭을 드러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믿음으로 예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았다. 이 밖에 기드온, 라합, 입다 등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반면, 출애굽 후 광야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 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들처럼 불평 또는 부정과 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데 앞으로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마 7:11)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현실만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반드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다. 그러니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에 두려워 말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달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성도가 되자.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성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4:12-13).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겨울을 진짜 따뜻하게 만드는 건  
난로가 아니라 나누는 손길이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귀하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Jesus mania by shin

5년 전 자살로 생을 마감한 한 유명 여배우의 전 매니저가 얼마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작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연에게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던 그는 우울증 때문에 약을 복용해왔는데, 그 약을 모이웠다가 한꺼번에 먹은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여배우의 남동생과 야구선수였던 전 남편 역시 자살로 유명을 달리 했던지라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더러 그의 죽음에 베르테르 효과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이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자살하면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독일의 문학자 괴테가 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남주인공 베르테르라는 사랑하는 루테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걸 알고 실의와 고독감에 빠져 끝내 권총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영적싸움의 결과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귀신의 발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낼 전신갑주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신재식 전도사

blessedmc@naver.com

# 꿈이 없는 젊은이는 죽어야 한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잠19:2)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파라과이(Paraguay) 예수중심교회는 날이 부흥, 성장하고 있었다. 도착 이틀날부터 선교센터의 세미나실은 계속되는 목사님의 강의로 불을 밝혔다.

먼저 청소년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에서 보내준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참석한 청소년들. 이 선교사의 말에 따르면 술과 마약, 문란한 성생활 등 천방지축이던 청소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고 있는 모습에 부모들도 교회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 이날 교육에 임한 청소년들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세미나에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교육에 임했다.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목사님은 청소년 리더들을 향하여 오직 공부에 매진할 것을 역설하셨다.

“지금 너희는 공부할 때이다.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다. 쓸데없이 어울려 나쁜 짓이나 하고 연애하다느리지도 못할 일을 저지르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미래요, 꿈이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떠한가? 나라가 약하니 주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국도를 빼앗기고 무시당하며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암울한 국가현실을 자각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혀서 나라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길 바란다.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학습에 최선을 다해라. 도무지 공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면 이 교회로 와라. 나는 여러분의 목사이고, 이 교회는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줄 것이다.”

열심히 필기하며 교육에 임하는 청소년들 중 목사님은 한 소녀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었다. 머뭇거리며 답을 하지 못했다. 목사님은 다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확실한 목표가 내 삶을 이끌어야 한다. 축구선수가 공을 차고 그 공을 향하여 뛰는 것처럼, 뭔가 꿈이 있어야 그 꿈을 향해 달려갈 것 아닌가? 꿈이 없는 젊은이는 죽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아무런 꿈도 없이 시간을 허비한다면 과연 이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다. 여러분 각자가 꿈을 갖고 기도하며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인재로 성장해갈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갖는 꿈이다.”

그리고 다시 그 소녀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의사가 되겠다고 대답했다. 목사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 설교에 성공한 사람이다. 꿈이 없던 아이가 내 설교를 듣고 꿈을 갖게 되었으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인가? 이제 모두 노트에 각자의 꿈을 적어보라.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오늘부터 달리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은 청소년들을 일일이 일으켜 세워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 물었다. 모두가 순서에 따라 일어나며 각자의 꿈을 외치기 시작했다. 강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잔뜩 경직되어있던 아이들이 이제 눈빛부터 달라보였다. 또한 오늘 강의를 통해 깨닫는 점이 있다며 일어나 기탄없이 발표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오늘 목사님은 단지 2시간의 강의를 하신 것이 아니라 파라과이의 미래를 바꾸신 것이라 믿는다. 나라의 젊은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제공한 햄버거 빵을 함께 먹고 목사님과 기념촬영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한층 활기가 넘쳐있었다.

저녁엔 교회에서 중추적으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한 교육이 있었다. 목사님은 많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맡겨진 일에 충성할 것을 당부하셨다.

또한 이튿날 아침에는 엔카르나시온(Encarnacion) 시의 차기 시장 당선자 호엘(Joel Marinado, 41세)이 찾아왔다. 목사님은 그에게도 시종일관 공부할 것을 강조하셨다.

“단지 이 도시의 시장이 아니라 더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영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시장이라고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어서는 결코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세계 선진국의 도시들과 교류를 갖고 인맥을 쌓으며, 또한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영어는 필수입니다.”

호엘 시장 당선자는 목사님의 열강에 고무된 듯, 반드시 영어를 공부해서 내년에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목사님은 그가 깨닫고 결단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크게 기뻐하셨다.

이어서 실업인 세미나가 열렸다. 대부분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목사님의 강의를 경청했다. 목사님은 역시 지식함양을 제일의 화두로 강조하셨다.

“아는 것이 없으면 할 일도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또한 그릇이 크다고 큰 그릇이 아닙니다. 그 속이 비어있어야 큰 그릇입니다. 지식을 함양하고 품격과 예절을 갖춘 겸손함으로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계속되는 강의와 교육으로 목사님은 설새가 없었지만, 참석자들마다 깨닫고 변화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 청소년 리더를 위한 세미나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 교회 직원자 세미나

열심히 필기하며 강의에 집중하는 청소년들

엔카르나시온 실업인 세미나를 마치고



## 방사능 공포 대처법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인류 최악의 재앙으로 불렸던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보다 더 큰 사고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꼽는다. 사상 최악의 재앙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처가 안일한 게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어서 국민들 사이에 방사능 공포가 점점 커가고 있는 실정이다. 생선 소비 급감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실례일 것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격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해도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방사능 공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사선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시 젊은 의사 아키즈키의 처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내과외사가 운영했던 성 프란시스코 병원은 원폭 투하 지점으로부터 불과 1.8km밖에 떨어져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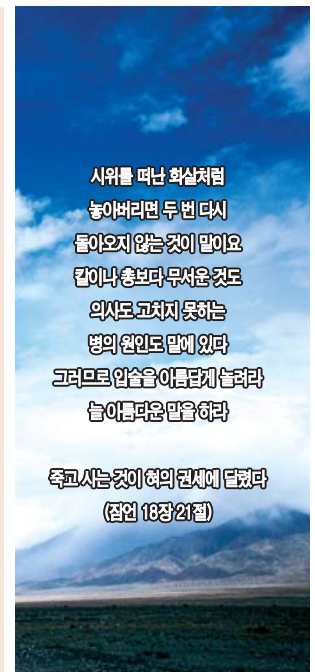
않았다. 그런데 의사뿐만 아니라 직원, 환자 모두가 방사선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 그 처방은 무엇이었을까? 놀랍게도 밥상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미잡곡밥을 먹어라. 2. 미역·다시마 등의 해조류와 된장을 배합한 음식을 해 먹어라. 3. 천연염을 활용하라. 4. 채소생즙을 가능한 많이 마셔라. 5. 흰쌀, 흰 밀가루, 정제소금, 흰 설탕과 유전자 조작식품과 고기를 먹지 마라. 6. 다양한 첨가물 가공식품과 청량음료도 안 된다. 7. 식용 숯가루도 도움이 될 수 있다. 8. 목욕을 자주 하라. 생물학적으로 생태계의 최하단에 위치하는 곡류는 육류나 어류처럼 방사선의 오염물질을 축적하지 않는다. 또한 축적된 방사선이나 오염물질을 섬유소, 비타민 B, 비타민 E, 셀레늄, 칼슘 등이 방아기전으로 작용하여 인체의 방사선을 제거, 무력화시킨다. 된장국의 지비콜린 이란 성분은 스트론튬과 같은 방

사선 물질을 비롯해 유독성 물질을 흡착, 체외로 배설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에 함유된 알긴산 나트륨은 방사성 중금속과 결합해 배출된다. 따라서 된장국에 미역이나 다시마 해조류를 넣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방사선에 소금과 해조류가 좋다는 정보가 돌면서 한때 해조류와 소금 값이 폭등하기도 했다. 채소생즙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세균의 체내 흡수를 막아준다. 식용 숯가루는 인체에 흡수되지 않는 물질로 체내 방사선 물질을 흡착, 배설을 촉진시킨다. 또 가능한 뜨거운 물에 몸을 약25분간 담근 상태로 있거나 천연염이나 베이킹소다를 타서 목욕하는 방법도 있다.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적절한 자연의 정화와 해독법도 알아두자.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죽고 사는 것이 역의 원리에 달렸다  
(잠언 18장 21절)